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음력 1월 28일)

# 부산남구신문

구정목표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

- 미래를 위한 도시기반 구축
-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 문화가 충만한 관광도시 조성
- 주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실천

제253호

2017 구·동정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

## 주민건의 114건 수렴

### 도로·하수 등 생활불편 건의 집중… 3월초까지 추진상황 제출

구청의 새해 살림살이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구정에 반영하는 '2017년 구·동정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 가 지난 2월 2~9일 열렸다. 이종철 남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이 관내 17개 동을 순회하며 가진 설명회에 각 동별 단체장과 주민대표 등 500명이 참석해 현안과 발전에 관한 격의 있는 논의를 펼쳤다.

도로개설 및 정비, 하수시설 개선, 주정차단속과 주차시설 확보,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주택개발사업 추진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114건(동현안 30건, 주민 건의 84건)의 견의가 쏟아졌다. 견의 사항 가운데 도로·하수 분야가 5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교통(18건), 건축재개발(11건), 공원녹지(10건) 등의 순이었다. 견의사항에서 예산 확보 및 집행이 필요한 예산수반 사업은 77%(88건)를 차지했다.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주민들의 이목을

#### ■ 구동정설명회 주민건의 집계

구분	계	복지	청소	공원	교통	도로	하수	재개발	건축	기타
계	114	10	2	10	18	50	11	13		
예산사업	88	10	2	9	10	45	3	9		
비예산	26	0	0	1	8	5	8	4		

끈 건의도 많았다. 대연4동 새마을금고 차순근 이사장은 인체에 유해한 연방 방역 작업 중단과 대연5동 날상은 3동장을 못끌 시장의 구간별 일방통행 실시를 제안했다. 이밖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지 활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견의와 부경대 인근의 향과문화거리 유색도로로 포장해 특색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남구는 설명회 현장 답변 내용 등을 참고해 3월초까지 소관 부서별로 계획 및 처리결과 등 추진상황을 정리해 내놓을 방침이다.

☎ 607-4112



2017 구·동정 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감만1동 주민이 지역 현안에 대해 견의를 하고 있다.



경성대 콘서트홀에서 열린 남구소년소녀합창단의 제8회 정기연주회 모습.



### 그대들 있어 남구의 겨울이 따스합니다

'소리 없는 나눔' 남구의 이름 없는 기부천사들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

소리 없이 선물을 베푸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눔 자체에 충실히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이름 없는 기부천사'로 올해 남구의 겨울이 따뜻했다.

지난 1월 말, 용호4동 주민센터에 50대 중반의 남자가 방문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손아름 주무관에게 봉투 하나를 쥐어 주고는 활급히 센터를 빠져 나갔다.

손 주무관은 그가 매년 용호4동을 찾아오는 '의명의 기부천사'임을 직감했다.

아닌 게 아니라 봉투 안에는 수표 100만원권 8장과 10만원권 20장 등 1,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편지 말에는 '용호4동~용호4동 주민들에게 전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방문은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모두 1,750만원을 기부했다. 눈 깜빡할 새 돈봉투만 던져놓고 훌연히 사라져 이 '천사'에 대해 알려진 건 아무것도 없다. '여린 시절 용호동에 살아 어려운 이웃을 돋고 싶을 뿐입니다. 더는 물지 마세요!' 천사가 남긴 유일한 말이다.

우암동 행정복지센터에는 10년 단골 '의명의 천사'가 있다. 주서과 설 명절이 다가오면 쌀

10kg 100포(200만원 상당)를 주민센터로 보내온다. 전화를 걸어 "쌀 보내니 잘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이 전보다. 지난 설에도 쌀이 도착했다. 1년에 두 번, 10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 기탁한 쌀값만 4,000만원이 넘는다. 행여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해 반드시 택배 차량을 이용하고 감사서한이나 기부금영수증도 거부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우암동 학교를 졸업한 50대 여성 사업가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듯 지난해 연말부터 올 2월까지 남구에 '출몰' 한 이름 없는 기부천사는 모두 9명으로 집계됐다. 10년 단골 우암동 천사부터 쌀 10kg 3포를 처음 기부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름 없는 기부'에도 나름의 패턴이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앞의 사례처럼 일단 의명 기부를 시작하면 꾸준히 이어진다. 대연5동에는 쌀을 매달 기탁하는 어느 동지가 있다. 쌀 20kg 5포를 매달 주민센터로 보내온는데 2008년부터 시작해 모두 1600만원 상당의 쌀을 기탁했고 400여 세대가 '사랑의 쌀'을 받았다.

주민센터의 꾸준히 '거래'를 하다보니 기부천사의 신분이 노출이 되거나 짐작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철저한 의명기부로 '정체'를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 607-4865

#### 올 겨울 '의명 기부자' 9명 성금품 기탁

용호4동 주민센터 1,000만원 주고 사라져

우암동에 10년째 택배차량으로 쌀 전달

초보 천사 등 다양하다.

'이름 없는 기부'에도 나름의 패턴이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앞의 사례처럼 일단 의명 기부를 시작하면 꾸준히 이어진다. 대연5동에는 쌀을 매달 기탁하는 어느 동지가 있다. 쌀 20kg 5포를 매달 주민센터로 보내온는데 2008년부터 시작해 모두 1600만원 상당의 쌀을 기탁했고 400여 세대가 '사랑의 쌀'을 받았다.

주민센터의 꾸준히 '거래'를 하다보니 기부천사의 신분이 노출이 되거나 짐작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철저한 의명기부로 '정체'를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 607-4865

#### 이번 겨울 남구의 '익명 기부' 현황

##### ▶ 본정

\*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에 50만원 기부.  
2014년부터 매년 1~2월 50만원씩 총 200만원 전달.

##### ▶ 대연1동

\* 쌀 10kg 20포(40만원) 주민센터 배달.  
2013년 9월 이후 280만원 상당 쌀 기부.  
\* 사연 : 양곡 업체를 통해 주민센터에 배달해 기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음.

##### ▶ 대연3동

\* 종교단체가 2016년 12월 쌀 10kg 200포, 20kg 12포(460만원) 전달.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대연4동

\* 2016년 11월말 의명의 독지가 쌀 10kg, 3포(7만5000원) 본인 처량으로 주민센터에 기탁.

##### ▶ 사연 :

연말 맞아 이웃 돋고자 함.

##### ▶ 대연5동

\* 매달 쌀 20kg 5포 주민센터 기부.

##### ▶ 사연 :

2008년부터 총 1600만원 상당 쌀 기부.

##### ▶ 사연 :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 주고 싶어함.

##### ▶ 용호1동

\* 사연 : 택배 박스에 '부족한 마음

이지만 행복마켓에 사용해주세요'

문구.

\* 2017년 1월 쌀 10kg 10포(20만원 상당) 보내음.

\* 사연 :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달 희망.

##### ▶ 용호4동

\* 2017년 1월 50대 초반 남성 주민센터 방문해 돈봉투 1000만원 전달.

\* 사연 : 3년째 용호동 주민에게 전해달며 1750만원 기부.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용호4동

\* 2017년 2월 50대 여성 쌀 10kg 100포(20만원 상당) 기부.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

여인 시절 용호동에서 성장해 생활편역 어려운 지역 주민 돋고자 함.

##### ▶ 사연 :